



김민석 국무총리, 「찌엔」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접견

- 한-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논의 -
- 베트남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·권익 지원 당부 -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「도 반 찌엔(Do Van Chien)」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을 접견하고, 양국 간 △경제협력 △인적교류 △한반도 등 지역정세 및 △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※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는 사회단체 관할 및 민의 수렴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, 베트남 내 국회 법안 상정, 국회 및 지방의회 입후보자 추천, 국가기관 감사 등 권한을 행사

□ 김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 후 고속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하고, 양 정상 간 통화에서 대통령님이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베트남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,

○ 본인이 국회의원 재임 시 제21대 한-베트남 의원친선협회 이사를 역임한바, 찌엔 위원장과의 만남이 더욱 뜻깊다며 환대했다.

□ 김 총리는 한-베트남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양국 관계가 교역·투자 등 면에서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, 앞으로 원전, 고속철도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.

□ 찌엔 위원장은 베트남의 당, 정부와 국민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,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ODA 협력국가로,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.

- 아울러 최근 베트남 내 태풍 피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,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.
- 김 총리는 한-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의 소중한 가교라고 하면서, 이들이 양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.
 - **찌엔 위원장**은 양국 국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, 베트남 체류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베트남 내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.
- 김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계속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. 아울러 금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인이 직접 정상 숙소를 방문, 점검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면서, 「르엉 끄영」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했다.
 - **찌엔 위원장**은 베트남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, 한반도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, APEC 정상회의 계기 「르엉 끄영」 국가주석의 방한 관련해서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정재상	02-2100-2109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임채영	02-2100-2132

